

전남 여성사업주 63% 음식·숙박·도소매업 종사

호남통계청 '통계로 보는 2019년 전남 여성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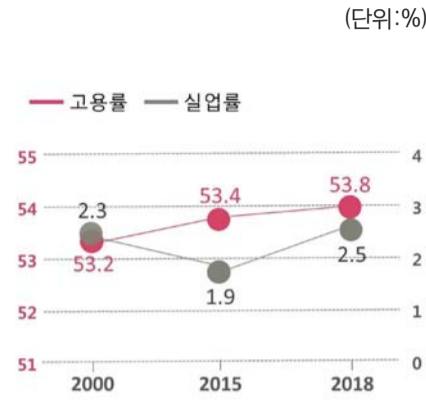
19년새 고용률 0.6%p·여성 가구주 비율 10%p ↑
미혼가구주 2.4배 증가, 3명 중 1명 사회안전 불안

전남지역 사업체 여성 대표 5명 중 3명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여성 3명 중 1명은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로 보는 2019년 전라남도 여성의 삶'을 발표했다.

◇미혼 가구주 19년 새 2.4배 ↑ = 올해 전남지역 여성 인구는 88만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했다.
2000년 102만명이었던 전남 여성은 2년 뒤 98만명을 기록하며 100만 인구가 무너졌다.
19년 전에 비해 여성인구는 14% 감소했으나 60대 이상은 25.2% 증가했다. 전남 여성 인구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0.6% 줄어든 87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남 여성은 2030년에는 84만6000명, 2040년에는 82만3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여성인 가구주인 가구는 200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전남 여성 가구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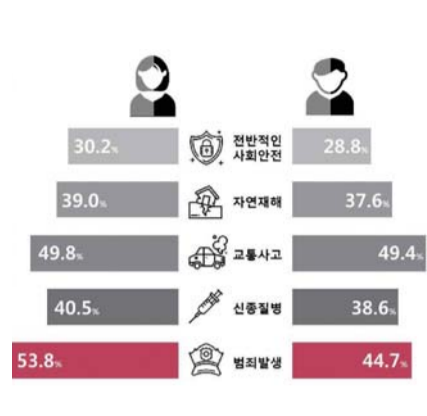
24만8000명으로, 전체 가구 대비 비율은 19년 전 22.9%에서 올해 33.5%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미혼 여성 가구주는 2만8000명으로, 2000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 25.4세에서 지난해 30세로 훌쩍 뛰었다. 지난해 남성 초혼 연령은 33.4세였다.
평균 재혼연령은 여성 44.9세, 남성 49.2세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년보다 331쌍 줄어든 5293쌍의 초혼 부부가 탄생했고, 이혼건수는 전년보다 162건 많은 417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부부가 30.2%로 가장 많았고 4년 이하(21.5%), 5~9년(20.8%) 등이 뒤를 이었다.
13세 이상 여성의 68.4%는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했고 절반 가까이(49.4%)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다.
◇여성 기업인 63% 서비스업종=지난

■여성 고용 동향



20여 년 동안 여성·남성 고용률은 20%포인트 안팎의 큰 격차를 유지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3.8%로 남성 71.3%보다 17.5%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간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2.7%→2015년 53.4%→2016년 54.2%→2017년 53.6%→2018년 53.8%로 소폭 오르내리고 있다.
전남지역 여성기업은 대부분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몰림 현상을 보였다.
2017년 전남지역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전체의 47% 수준인 6만3595개로 나타났다. 여성 대표자 비중이 50%를 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3%)과 교육 서비스업(53.7%) 2개에 불과했다.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여성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불안하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30.3%로, 남성 응답률(28.8%)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여성들은 주로 '범죄 발생'(53.8%·중복 응답), '교통사고'(49.8%), '신종질병'(40.5%)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외 2017년 기준 전남 여성의 기대수명은 평균 85.6년으로 남성(78.4)보다 7.2년 높았고 여성의 주요 3대 사망원인은 '암' '폐렴' '기타심장질환'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여성 비율은 50.8%로 남성 응답 비율(47.1%) 보다는 조금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88.86 (+24.02) ↓ 금리(국고채 3년) 1.38 (-0.03)
- ↑ 코스닥 655.91 (+6.73) ↓ 환율(USD) 1169.70 (-2.30)



할로윈 포토존서 사진 찍고 선물 받으세요 롯데백화점 호남총점지역(지역장 정운성)은 '할로윈데이'(31일)를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백화점·아울렛 10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갤럭시 폴드 5G', '에어팟' 등을 증정한다. <롯데쇼핑 제공>

취준생 첫 월급 희망액수 평균 249만원

실제 예상 액수 220만원

잡코리아·알바몬 공동조사

취업준비생들은 평균적으로 250만원 수준의 첫 월급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는 220만원이라 답했다.
22일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취업준비생 1628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첫 월급 희망 액수는 평균 24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7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같은 조사 때(223만4000원)보다 25만원 이상 높아진 액수다.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259만3000원으로, 여성(237만8000원)보다 20만원 넘게 많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26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자 233만2000원, 2·3년제 대졸자

232만1000원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을 겨냥하는 취업준비생들은 평균 279만7000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외국계 기업 266만2000원 ▲공기업 247만5000원 ▲중소기업 22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했을 때 실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급여액은 희망액수보다 약 29만원 적은 평균 21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용돈·선물 드리기'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52.1%로 압도적이었다.
이밖에 '적금통장 만들기'(11.7%)와 '가족들과 외식하기'(9.2%), '고생한 나를 위한 쇼핑'(7.2%), '친구·지인들에게 월급 덕'(4.9%) 등이 뒤를 따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주택건설협회장에 정원주 증흥 부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력"
취임식은 다음달 7일

"주택사업 하기 좋은 광주·전남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연해 나가겠습니다."
정원주(51) 증흥건설그룹 부회장이 22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이날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19 정기총회'를 열어 860여 회원사 만장일치로 정 부회장을 회장으로 추대,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며, 아취임식은 다음달 7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위더스웨딩홀에서 열린다.
정 신임 회장은 "지역 건설사들이 현재처럼 전국의 민간주택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품질 개선을 끝



임없이 도모하고, 사회 공헌사업과 회원사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건설사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주택사업 정보 교류 및 선진화 방안, 주택시장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미분양 증가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사들을 독려하고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초반에 주택건설업에 입문한 정 회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및 광주·전남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프록슈구단 광주FC 대표를 맡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이어 광주도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조례 의결

전남도에 이어 광주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소상공인 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기술 개발, 지역제품 공동 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지역에는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총 30개 협동조합에서 2200여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조례에는 ▲3년마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및 판로 확대 노력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비 지원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무장 광주시의원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 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 원자재 공동 구매, 공동 기술개발 및 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예향 광주의 자부심!

지역특산물 제1호

무등산 수박의 유래

무등산 수박은 1230~1240년경 고려인 홍다구가 몽고에서 종자를 가져와 개성지방에서 재배하다 무등산으로 옮겨 재배된 것은 약 350년전으로 추정되며 광주지역 유일의 진상품으로 오늘날에도 귀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의 특성

과피색은 진초록이며 무늬가 없습니다. 과육은 선홍색으로 10~30kg의 대형 과일입니다. 과피는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며 성숙과정에서 과육이 1~2cm정도 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종자는 크고 백색이며 눈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배방법의 보전에 따라 천연적이고 자연적인 맛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칠 맛의 느낌이 오래 지속됩니다. 차가워서 드시면 맛이 한층 더 합니다.

무등산 수박의 신비성

호남인들이 매우 신성시하는 무등산에서 생산되는 특이하고 신비로운 과일로, 일명 푸랭이 수박이라고 합니다. 그 크기나 맛의 풍부함이 과일중에 으뜸으로 손꼽혔으며, 많은 여름 과일들이 재철을 만나 기세를 부리는 것을 시샘하는 듯 8월 중에 그 거대한 자태를 나타냅니다. 조선시대 광주지역에서 임금께 올리던 유일한 진상품입니다.

무등산 수박의 희귀성

무등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으며 무등산내에서도 경작조건이 맞는 곳을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한 포기 에 하나의 무등비파 밖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고 신비스러운 과일입니다.

무등산 수박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

- 생물이므로 구입 후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보관은 냉장 보관 하시고 구입 후 5일 이내에 드십시오.
- 수박을 자르실때는 가위로 자르십시오.

무등산 수박 구입 문의
무등산수박생산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송강로 261 "무등산수박공동직판장"
TEL : 062)266-8565, 010-2681-9970
E-mail : jtyk9970@hanmail.net

무등산 수박 리콜방법

- 구입 후 날짜가 5일 이상 경과 하였거나 택배 시 파손된 물품을 받았을 때는 리콜되지 않습니다.
- 리콜은 수박이 덜 익었거나 부패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리콜하여 드립니다.
- 리콜방법은 수박 표면에 붙어 있는 견출지 상하의 번호와 수박 내용물을 사진이나 핸드폰, 이메일로 연락 주셔야만 리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출지가 없으면 리콜 불가)

※ 무등산 수박 청아찌, 수박즙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청